



SAMSUNG
Galaxy Note8

Market Index <25일>		3판
코스피지수	2492.50	+2.01
코스닥지수	689.14	+1.93
국고채금리 (3년물, 연%)	2.094	+0.037
환율 (원·달러)	1127.90	+0.50
원유(100만당)	990.65	
원유(1000)	1326.81	
일본 닛케이	21,707.62(-97.55)	
WTI(유가)	52.47달러(+0.57)	
국민의 평생 투자파트너 KB증권		

한국경제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hankyung.com

제16983호 | 대표전화 02) 360-4114

‘親노동 정책’ 제동 건 국회 환노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혁과 개방·경제 발전·샤오강 시진핑 2기 ‘3大 키워드’

“휴일수당 중복할증 안돼
최저임금 산정 기준도 문제
입법과정서 재계 요구 반영”

현행 최저임금 범위

포함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 2 직무 직책수당
제외	1 상여금 2 교통비 증식비 등 3 연장근로수당
재계 주장	제외 항목 중 1, 2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넣어 기업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로 인상하자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국회의 노동 관련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경제계의 주장을 상당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된 친(親)노동정책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A3면

홍 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편을 들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중복할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현재 50%의 가산수당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가 중복할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상여금과 식대가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충분히 국회 측 우려를 전달했다”며 “최저임금위가 국회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되 5인-299인 사업장은 2022년께 적용(5인 미만은 미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가 총집결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국내 최대 대체투자 콘퍼런스 'ASK 2017 글로벌 부동산·인프라 투자서밋'이 2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21개국에서 온 700여명이던 케일 서버리스캐피탈 회장(전 미국 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前 미국 부통령〉 댄 케일 “부동산·인프라 투자 기회 몰려온다”

ASK 2017 “北核 제외하면 글로벌 리스크 없어”

댄 케일 서버리스캐피탈매니지먼트 회장(전 미국 부통령)은 “글로벌 부동산·인프라시장에 안정적인 투자 기회가 몰려 있다”며 “북핵 등 지정학적 위기를 제외하고는 시장 안정을 해칠 만한 변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4, 5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 부통령을 지낸 케일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17 글로벌 부동산·인프라 투자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제가

탄탄하게 동반 성장하면서 부동산·인프라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안정을 해치는 건 통상 은행의 유동성 위기나 지나친 차입, 공급 과잉, 경기 침체 등인데 현재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행사에 참가한 각국 투자전문가들도 대부분 대체투자시장을 밝게 전망했다. 강신우 한국투자공사(KIC) 투자 운용본부장(CIO)은 “가능성이 낮은

‘거품’이나 ‘조정’을 지나치게 걱정할 게 아니라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 스완고 인베스코리얼에스테이트 본부장은 “신기술 발전과 함께 밀레니엄 세대(1980~2000년생)가 경제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공장을 재건축하는 ‘크리에이티브 오피스’, 레저 시설을 겸비한 ‘체험형 유통매장’ 등 새로운 형태의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형재/김대훈 기자 yoochool@hankyung.com

중 공산당 최고 지도부 7명 선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64·사진)이 집권 2기 정책의 3대 키워드로 개혁과 개방, 경제 발전, 샤오강(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善治) 건설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A10면

시 주석은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9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소개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 2기가 ‘2개 100년 목표’인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과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 사이에 걸쳐 있다고 거론하면서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 2019년 공화국 설립 70주년을 준비하고 2020년엔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년)이 확정된 임무를 계속 실행해 공화국이 더 번영하고 부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열어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62)를 비롯한 상무위원 일곱 명



을 선출했다. 시 주석과 리 총리에 이어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비서실장(67)과 왕양(汪洋) 부총리(62),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실장(62),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60), 한정(韓正) 상하이 시 당서기(63)가 최고지도부를 이룰 상무위원에 올랐다. 1중전회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19기 1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구성이 순서대로 들어와 당내 서열을 알렸다.”

직책은 리잔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은 당 중앙서기처 서기, 한정이 상무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직책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공개된다. 자오러지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에 확정됐다.

베이징=강동규 특파원 kdg@hankyung.com

“신재생 발전 목표 달성에 80兆 필요”

한전 발전자회사 국감 자료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 중인 신재생 302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열어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62)를 비롯한 상무위원 일곱 명

짓기 위해선 80조222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 비중 20%를 달성하려면 53GW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20GW는 민간을 통해 공급한다 하더라도 신재생 관련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액수는 80조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전력자립도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 25일 윤환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에 따라 이들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가 2030년까지 확보하기로 계획한 신재생 설비용량은 35GW다. 지난해 기준 6개사의 신재생 설비용량은 2GW에 불과해 33GW의 설비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

6개 발전사는 33GW의 신재생 설비를

한경 Inside

김조원
KAI 사장
▶A19면



구독신청 (전국) 1577-5454

한경부동산 ▶B1-8면
Leisure & ▶C1-8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 강행

연내 7만4000명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중 7만4000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이 된다. ▶관련기사 A3면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20만 5000명(64.9%)에 대해 3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 직종의 임금체계는 다음

달 마라에 발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바뀌더라도 임금 등은 당분간 현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리후생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 재정 악화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로 인한 청년층 여차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의 반발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경봉/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

特!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넓게 쓰시고, 가격대비 효율 높은 아파트텔 탄생!

영등포 뉴타운 ‘노른자위’

한강이 보이는 **방2개+거실** 아파트텔 분양!

밀레니엄시티 아파트텔

영등포 뉴타운 부도심 개발 미래가치!!

1가구 2주택 적용 안됨 취득세 감면 혜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연 2천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차법 등 특례에 한함)

여의도와 영등포를 동시에 품은 특A급 입지!

- 트리플 역세권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 5호선 영등포시장역 / KTX 영등포역
-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영등포 시장 교보문고·CGV 및 각종 문화시설, 약 150여 개의 병의원
- 특화된 설계 전세대 2룸+거실, 다양한 편의시설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생활의 여유를 주는 특화된 공간
- 미래가치 탁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1,000여 기업체 등 약 30만여 명의 임대 수요 1~2인 세대에게 인기있는 특별한 수익형 아파트텔

신청계좌 : 국민은행 291601-04-196605 예금주 : (주)무궁화신탁 신청금 : 100만원 (계약금 20만원)

문의 전화 02)6053-0780

* 국가 지정사업, 분양의 내용 및 상세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주선업체, 가산, 부가, 계약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개발호재 관련 사항은 관계당국이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책임입니다.